

6·2 지방선거 핫이슈

시민배심원·국민경선 등 개혁과 흥행 초미의 관심

2010년은 '선거의 해'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물론이고 시·도 교육감, 교육의원까지 유권자 1인당 8차례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6·2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 지방선거의 주된 관심사를 살펴본다. <관련기사 3면>

다음달 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2 지방선거전이 본격 접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정서상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후보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정권 창출에 실패,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과연 어떠한 경선 방식을 선택해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짊어질 능력 있는 인사들을 공천하고 정치적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2월 초순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월 중순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가 기존의 경선 방식과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시민배심원제 등 새로운 경선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당과의 협의와 최고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 최종 경선 방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실는 순서
- 1 민주당 공천 방식
 - 2 단체장 3선 도전
 - 3 시·도교육감 향방
 - 4 다당제 경험 가능?

특히, 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및 인터넷 투표를 경선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우선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완전국민경선과 국민참여경선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시도민들이 직접 한 표를 행사, 후보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데다 전국적으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광주와 전남의 경우, 일선 민주당원과 시민들의 변별력이 크지 않은데다 타 정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효과도 별로 없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경우, 현재로서는 당원 경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일반당원 경선보다는 진성당원과 대의원에 국한하는 제한적 당원 경선을 거론하고 있으며 '동원 경선'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이전에 등록된 당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경선의 경우, 예비 후보들의 인지도가 낮고 지역민의 관심도 크지 않은 데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기사람 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민 배심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초단체장 경선 방안이 가장 복잡하다. 경선 방식 도입을 놓고 시도당과 중앙당의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데다 지역적 특성 등도 천차만별이어서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당원과 지역민이 각각 50%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가 유력한 상황이며 일각에서는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우선 후보를 1차로 거른 후 경선을 치르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변화와 개혁'이라는 지역 민심의 흐름을 반영, 혁신적인 경선 방법을 도입, 잠신평가 능력 있는 인사들을 공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공천=당선'이라는 오만한 자세로 경선 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지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휴일도 잇은 채...

3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타이어를 점검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들은 새해 첫날에도 휴일을 반납하고 생산라인을 지켰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재기 나선 금호, 연휴반납 공장 가동

그룹 임원 대폭 축소 등 구조조정 추진 채권단 내달까지 워크아웃 계획 마련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위기 타개를 위한 재기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워크아웃 대상이 된 금호타이어의 경우 새해 연휴도 쉬지 않고 공장을 가동했고, 그룹차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 등 채권단

은 다음달 말까지 워크아웃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룹 오너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금호타이어는 1~3일 신정연휴에도 광주·곡성·평택 공장을 가동했다. 노사가 애초 1일 하루 만이라도 쉬기

로 했으나, 사측이 밀린 주문량을 소화하자는 취지에서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자 1천255명이 휴일을 반납하고 출근해 모두 4만1천500개의 타이어를 생산했다. 워크아웃 소식이 전해지면서 "열심히 일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애사심이 발휘된 것이다.

광주공장 주현철(36)씨는 "회사가 힘든 만큼 직원들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들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계열사별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등 난국

로 움직임을 표면화되고 있다. 박삼구 명예회장은 지난해 말 임원회의에서 "결혼한 자제로 위기를 극복하자"면서 "내부적으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외부적으로는 그룹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단행할 그룹 인사에서 현재 250명(대우건설 제외)인 임원을 200명 미만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계열사는 CEO의 교체도 예상된다.

채권단의 워크아웃 작업도 본격화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6일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동의를 받을 계획으로, 실사를 거쳐 이르면 2월 말까지 채무조정방안을 포함한 워크아웃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약식 실사와 채권단 회의를 거쳐 정상화 방안이 마련된다.

채권단은 또 그룹 오너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주회사인 금호석유화학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지호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 최대 5년 경영권 유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최장 5년간 지주회사적인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유지를 보장받았다.

금호그룹은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에 돌입하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출자전환 후에도 우선 3년간, 최대 5년까지 경영권을 갖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자체 정상화를 추진키로

한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일단 3년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호그룹은 그러나 추가로 2년간의 말미를 얻은 뒤에도 정상화에 실패하면 경영권을 유지하게 어렵게 된다.

채권단은 또 워크아웃 대상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통해 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금호가 3년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2개 기업 역시 추가로 2년을 보태 총 5년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경영권을 잃게 된다.

그룹의 지주회사적인 금호석유화학이 경영권을 내놓는 것은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권을 모두 잃게 된다는 의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통상 워크아웃 플랜은 3년이나 5년 정도를 보고 짜기 때문에 금호그룹이 해당 기간에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영권을 그룹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광에 150m '바다타워' 세운다

전남 최고 높이...내년 준공

영광군이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최고층의 건축물을 세우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염산면 향화도 선착장 일대에 2011년 준공을 목표로 100억원을 투입해 150m 높이의 '천년의 빛 바다타워(가칭)'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세워질 경우 해상 건축물로는 전남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이자 전국에서 4번째다. 군은 구립 23일 군정에서 '염산향화도 바다매체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바다타워는 영광 굴비의 비늘과 파도, 바람, 태양을 조형화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어촌박물관, 전시실, 전망대, 회관 등이 들어선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